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천국에서 큰 사람

(마 18:1-14)

본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에 의한 이스라엘의 건국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던 공생애 말기에는 이 논쟁이 더욱 더 치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누가 더 큰 인생입니까? 누가 더 잘난 인생입니까?”라는 질문에 진리의 답을 주십니다.

### 1. 어린 아이 같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의 인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성품, 곧 겸손함과 단순함과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3절에서 다시 한 번 ‘돌이켜 어린 아이 같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는 헬라어로 ‘스트라타페테’로 단호하게 돌아서다는 뜻인데 ‘철저한 회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회개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보다 더 옳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부모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단호하게 돌아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 2.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함은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낮추다 ‘타페이노오’는 오랜 삶의 경험과 인격의 훈련을 거쳐 형성된 겸손의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은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열린 나라이며 그런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큰 자가 되는 나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 3.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다

예수님은 1절-5절까지는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paidion’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다가 6절부터는 갑자기 작은 자, 즉 ‘micron’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약자들을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1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듯 저들을 영접하시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 18:1-14)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the argument about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begins among the disciples. Especially, this argument became fiercer at the end of Jesus public life. Jesus called a little child before them and gave answers of truth about the questions, “Who is the greatest?” and “who is the more distinguished?”

### 1.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man who confesses like a child.

It is really an amazing teaching that we are not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ithout being like a child. At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no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women. Nonetheless, to be like a child is that the child’s nature, in other words, his modest and simplicity is unconditionally to trust in their parents. Subsequently, Jesus, in the verse 3, emphasizes once more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Here, ‘unless you change’ means to ‘to turn around positively’. It is sometimes used to mean ‘to repent thoroughly’.

Children who confess well exist. If they realize that their parents’ judgment is more right than theirs, because they know if they leave their parents they could not live. They change their mind according to their parents’ word. Therefore, Jesus says that we should change our mind, like little children, and thoroughly live our confessional life.

### 2.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a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One who humbles himself, in other word, humility is one of the children’s characteristics. Hence, Jesus emphasizes the humility like children. Humble, does not refer to the virtue of humility of which was made by the experience of a long life and the discipline of personality. It recognizes that he is simply in the small and weak existence. Jesus teaches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the place where those who think they are the greatest enter but that is open to those who think they are not qualified, and only such humble people become the grea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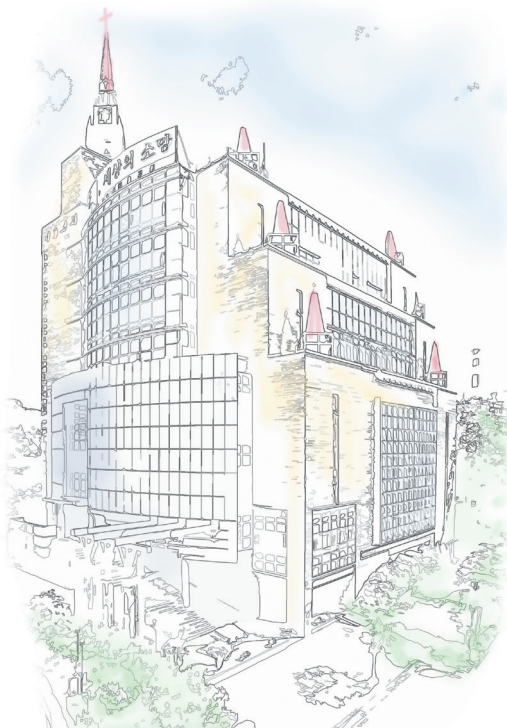
### 3. Those who welcome the weak are the greatest

While Jesus, from verse 1 to verse 5, uses the word ‘paidion’ which means children, all of a sudden, from the verse 6, he changes it into a new word, the small, in other words, ‘micron’. This means that just as not only children but also all of the social weak welcome Jesus, so we must welcome him.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on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v. 10).

My beloved Christians,

Is there the weak among us? Is there anyone who sheds secret tears? I hope you will serve them with your mind just like you serve Jesus. By welcoming them just like we serve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a God’s people enjoying prai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사명자대회 은혜안에 진행중

### 자율기도 : 539 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 2독 이상 진행 중

지난 주일 I, II, III부예배시 발대식을 가진 2014 사명자대회(위원장 : 박두호 장로)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에는 성도들이 본인의 시간에 맞춰 책임있게 참여하므로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기도에

참석한 인원은 539명이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릴레이 성경읽기는 10월 8일 현재 2635장으로 이미 2독을 넘어섰다.(집계 : 사명자대회 기도분과)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24시간 기도 신청서를 1층, 2층 보관함에 제출하기 바란다.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10월 17일(금) / 본문 : 요한 1서 1~5장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해 열고 있다. 올해 성경암송 본문은 요한 1서 1-5장으로 하며 예선은 10월 12일(주일) 교육1국, 교육2-4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본선은 10월 17일(금)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602, 603,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2013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학생들

행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 1국은 오정수 장로, 이계홍 장로, 김안성 목사, 구분혜 전도사, 교육 2-4국은 안인호 장로, 서준권 목사, 황 광 목사 영어 암송은 이강진 장로, 서명철 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시상은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 장려상으로 시상 및 발표는 10월 19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독교운동본부 전국 지도자 결의대회

### 10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교회 본당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독교운동본부에서 전국지도자 결의대회가 10월 13일(월) 오전 11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지도자 결의대회는 우리교회가 속한 교단(통합) 지도자 약 600여 명이 모여 새로운 한국을 세우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의하는 대회이다. 결의대회 순서는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

지 1부 경건회로 모인 후 2부는 결의대회로 이어진다. 우리교회 이종운 원로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상임대표)는 1부 경건회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며 2부 결의대회에서 중앙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15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 토요 학부모 기도회 : 10월 18일(토)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10시, 501호에서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이하면서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5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실시한다. 고등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기도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참가 할 수 있고, 특히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참여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토요 학부모 기도회"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로 10월 18일(토)부터 11월 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01호에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한다.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고등부의 천세종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인도한다. 대입 수능 시험일인 11월 13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는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로 모이며,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기도를 인도한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9)

**(문 149) 아모스 8:11-12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여호와와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답) 아모스의 예언활동은 여로보암 2세(793-753B.C)말기쯤 북왕국의 배교행위에 대하여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전반부에서는 앗수르가 독립국가인 북왕국과 도성들을 멸한 722BC에 사마리아의 멸망이 가까워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암8:11-12)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마지막 십년동안 정부관리들 성직자들 그리고 여호와와의 인도와 위로를 찾으려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길보아 전투 전에 여호와로부터 아무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엔돌로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것과 같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것과 같습니다.(삼상 28:6 이하)

여기서 여호와와의 말씀은 계시된 히브리 성경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특별한 인도를 하시는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여로보암 1세가 931B.C에 열지파로 왕국을 세운 북왕국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망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와 바벨론 포로 이후 13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배신행위가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면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는 곳에 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조심스럽게 받지 않는 이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의 자비나 위로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 - 기도합시다

# 기도로 사명을 구하자!



박종권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장)

2014년 사명자대회를 알리는 대형 연속기도현황판이 올해도 1층 웨스트민스터홀 앞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제출한 자율기도 신청서의 기도 시간들을 현황판에 옮겨 적으면서, 연속기도현황판이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뽁뽁하게 채워짐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5시 사이의 기도시간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신 몇 분의 권사님들이 사명자시간 내내 철야기도로 연속기도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새벽시간 연속기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믿음 없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음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으며, 문제 해결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해결을

사람에게 묻지 말고, 자기생각으로 풀려하지 말고 사명자대회 연속기도시간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상대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VIP(전도대상자)를 품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드려야겠습니다.

2014년 사명자대회본부에서는 주보삼자로 이번주 연속기도 예정자를 알려주며, 올해도 104호에 사명자카페를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음세대들이 좀 더 많이 서울교회의 전통인 사명자대회에 참석하여, 서울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도록 토요일중 한날을 정해 부서가 단체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각 다락방 및 선교회의 모임을 사명자대회 기간중에 연속기도로 갖는 것도 제안 드립니다.

교회설립 50일전부터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한 서울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 점검하고, 더 큰 사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대회 24시간 연속기도현황

사명자대회 - 전도합시다

# 사명자와 전도



이윤자 집사  
(70인전도대)

금년 가을도 풍성함과 분주함 속에서 알알이 익어가는 열매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설립 기념일 50일 전에 시작하는 사명자 대회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띠를 이어 기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복음 전파, 곧 지상대명령 일 것입니다. 참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새생명축제때 9명작정해서 4명등록하고 그 중에서 두분은 열심히 여전도회에 나와서 봉

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명 작정했으며 교회에서 하는 Life5운동에 맞추어 매주 방문하여 관계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도운동의 실천방안으로서 5.1.3운동이 있습니다. 5000명의 VIP를 작정하고, 1000명의 교회방문자를 위하여, 300명 이상의 등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일을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며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서울교회에 성령이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사명자 대회를 통해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 지기를 바라며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믿음의 역사가 다음세대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기도

#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박두호 장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스물네 해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시대와 역사 앞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가정들!  
운유와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조국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갈등과 원망을 덮고  
이제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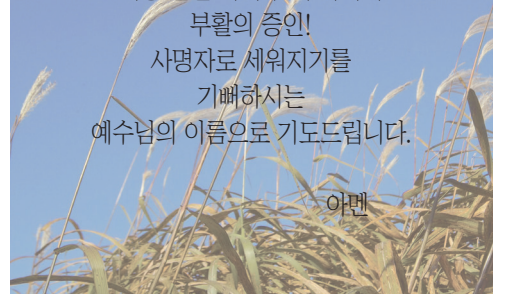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영혼사랑이  
구원을 위한 사명이 되게 하시고  
5.1.3전도 목표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증인!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정신적 편협함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근원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독교라는 그 순수함 속에서 모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발을 확고하게 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인간 본성 안에서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용기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1831년 괴테)



려한 건물과 사람 모으는 프로그램과 교인수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정신은 구시대적 유물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온 종교개혁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 회장 이종윤 목사)는 매년 10월 신학자 중심의 세미나와 서적번역, 출판 등의 종교개혁 기념 사업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가졌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는 심정으로 올해는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는 제하의 평신도 심포지움을 갖는다. 기념사업회는 여타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산되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올해는 종교개혁 497주년 되는 해이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하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소수의 종교개혁가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종교와 교회의 담장을 뛰어 넘어 세계사와 사상,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혁명을 일으켰노라고 훗날의 역사는 평가한다.



비텐베르크성 교회문의 95개조 반박문

그런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종교개혁정신이 한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친 한국교회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화

종교개혁정신에 교회와 평신도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움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주제:종교개혁과 한국교회
- 강사:이종윤 목사
- 날짜:10월 17일(금), 오후 6시
- 장소:현대리버빌 문화센터 (성동구 광장동131-1)

(편집부)

##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대장:송인권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음악 아카데미(대표:김명엽교수)의 "2014 교회음악 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연주되기도 하는 오늘의 연주는 백경화집사의 지휘로 '대관식 찬가(F.Handel곡)',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A.Bruckner곡)', '거룩하시다(J.Leavitt 곡)', '내영혼 주안에 있네(M.Hogan곡)'의 네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임아름 선생,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와 강다혜, 김유빈(오보에), 안희진, 심충현(파곳), 정현지(트럼펫)선생으로 이루어진 챔버 앙상블팀이 함께 연주한다.

## 제2기 어린이전도학교 개강

제2기 어린이 전도학교가 10월 18일(토) 오후 3시에 개강되어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교회 601호이며 등록비 20,000원이다.



##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12일(주) 수원 서둔교회에서 설교한다. 13일(월)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 전국지도자(통합측) 결의대회 설교한다. 14일(화)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 16일(목) 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여호수아회) 1000회기념대회 설교한다. 17일(금) 종교개혁497주년 기념특강을 한다. 18일(토) 종교개혁500주년월례회를 소집(고전 명저번역현정식)을 갖는다.

■ 연주회 : 2교구 김현정13집사 월요정오음악회 '하프시코드와 함께하는 바로크음악 여행' 10월13일(월)12시10분 정동제일교회 뽀얏예배당(중구 정동)  
■ 주일식당봉사 : 이삭선교회 도르가전도회(10.12) 빌립선교회 리브가전도회(10.19)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 동계 비전트립 단원 모집

2015년 2월 2일 - 2월 12일  
미얀마 양곤

선교위원회(위원장 : 이영기 장로)는 2015년 동계비전트립 지역을 미얀마 양곤으로 확정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집사를 임명하였다. 동계비전트립은 교회학교 및 선교사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마감은 2014년 10월 21일(월)~21일(목)이며 신청마감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최차순 집사(010 - 9042-3388)에게 하기 바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

14일(화) 오전11시 8층 만나홀

대치1동 한마당 경로잔치가 대치1동주민센터 주관으로 14일(화) 오전11시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을 실천하고자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대치1동 주민 중 65세 이상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및 경로잔치를 갖는 행사로 우리교회 6층 만나 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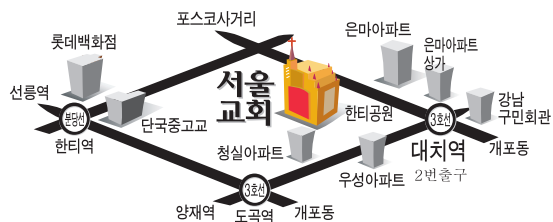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명자 대회 기간 중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2.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들(입시)을 위한 기도회(토/주)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3. 원로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및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들을 위해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